

자아특성과 대인관계특성에 따른 학교적응이 높은 저소득층 아동의 판별분석

A Discriminant Analysis of a High Level of School Adjustment and Low Level of School Adjustment in Low-income School-aged Children using Interpersonal-related Variables and Self-related Variables

공인숙(In-Sook Kong)¹, 민하영(Ha-Young Min)^{2*}

¹Division of Social Welfare, Sunchon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Child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discriminating a high level of school adjustment in low-income school-aged children using interpersonal-related variables(moth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self-related variables(ego-resiliency, self-control). The subjects were 335 children in fourth, fifth and sixth grades in 4 elementary schools in Daegu. Mean(SD), t-test, and 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Base on the results of the discriminant analysis, the discriminant functions suggested that the best predictor for distinguishing between a high level of school adjustment in low-income school-aged children and a low level of school adjustment was ego-resiliency. Self-control, mother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reliably separated the groups. And using ego-resiliency, self-control, mother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as predictors, the discriminant analysis correctly classified 92.3% of the participants.

▲주제어(Key Words) :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모애착(mother attachment), 또래애착(peer attachment), 자아탄력성(ego-resiliency), 자아통제(self-control)

I. 문제제기

경제적 어려움이나 빈곤은 생애 초기 아동의 건강, 학교생활 적응 및 사회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지적(Duncan & Brooks-Gunn, 1999)되고 있다. 경제적 빈곤이 가지는 부정적 예후 때문에 소득이 낮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는 국가마다 다양한 차원에서 계획

되며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Head Start, 영국의 Sure Start, 캐나다의 Fair Start 그리고 우리 사회의 We Start와 Dream Start 등은 저소득 빈곤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재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저마다의 독자적 취지 안에서 운용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저소득 빈곤 가정 아동의 성공적 학교적응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성공적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것은 학교적응이 이후

• 본 논문은 2013학년도 한국가정관리학회 주관 공동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확장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Ha-Young Min, Department of Child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Hayang-eup, Kyeongsan, 712-702, Korea, tel: +82-053-850-3545, E-mail: hymin@cu.ac.kr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기능하기 때문이다(Crossnoe & Elder, 2004). 학교적응이 갖는 예후적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저소득층이 아닌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 적응을 보이는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Gerhoff et al., 2007; Song & Choi, 2012)은 보다 많은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지 않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을 증강시키는데 도움이 될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저소득 가정 아동은 낮은 학교적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을 훌륭히 수행하는 아동들이 있다. 빈곤이라는 물질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서 높은 적응력을 갖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를 밝히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을 증강시키는 방안을 탐색하되, 저소득층 아동과 비저소득층 아동의 비교 연구를 통해 증강 방안을 탐색하기보다, 저소득층 아동 중에서 학교적응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판별할 수 있는 변인 탐색을 통해 증강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의 소득 간 차이(집단 간 차이)에 기초하기보다 저소득층 내 차이(집단 내 차이)에 기초한 접근 방법은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현장감있고 현실성있는 정보와 자료를 탐색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방안 제시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중 어머니와의 관계는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환경적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부모와 긍정적이며 수용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아동의 학교적응이 그렇지 못한 아동에 비해 높은 점(Ackerman & Brown, 2006; Amato & Fowler, 2002; Jackson et al., 2000; Min & Kwan, 2004; Oh, Ahn, & Kim, 2011) 그리고 빈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양육에 애정적 태도를 보이고 자녀와 원만한 의사소통을 이룰 때 자녀의 학업적 성취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Orthner, Jone-Sanpei, & Williamson, 2004)을 고려해 볼 때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 역시 부모 특히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어머니와의 관계 중 어머니에게 느끼는 심리적 친밀감인 애착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토대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어머니-아동 간 관계의 질을 함축적으로 나타낸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어머니 애착은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을 판별할 수 있는 의미있는 환경적 변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 다른 환경적 변인으로, 가정 환경에서 형성되는 어머니 애착 뿐 아니라 학교 환경에서 형성되는 또래애착도 고려될 수 있다. 친구 관계의 질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변인(Berndt, Hawkins, & Jiao, 1999;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Moon &

Sim, 2001)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또래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결속감이나 유대감인 또래애착은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경우 또래애착은 학교적응에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학교적응을 나타내는 아동의 경우, 저소득이라는 취약한 환경적 조건이 아동의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함의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적응이 높은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취약한 경제적 상황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처럼, 가정 환경 변인인 어머니와의 관계나 학교 환경 변인인 또래와의 관계 역시 학교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환경적 요인보다 아동 자신이 가지는 개인 내적 특성에 의해 학교적응이 더 많이 영향받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학교적응이 높은 저소득층 아동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의미있는 개인 내적 특성으로 자아탄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역경에 처해있는 개인이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하여 긍정적 적응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개인 내적 특질(Luthar, 1991; Masten, 2001)이기 때문이다. 심리적인 탄력성이라 불리우는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 비교적 잘 기능할 수 있는 내적 능력(Garmezy, 1991, 1993)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을 효과적이고 융통성있게 대처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아동이라도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적응을 나타낼 수 있다. 역경 상황에 있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높은 학업수행력(Compas, Hinden, & Gerhardt, 1995; Kwok, Hughes, & Luo, 2007)을 보이며 높은 학교생활적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Jeon & Song, 2013; Lee & Choi, 2007; Oh et al., 2011)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저소득층 아동의 높은 학교적응은 자아탄력성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학교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 자아통제도 고려될 수 있다.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 및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행동, 감정, 사고를 다루는 기질적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는 자아통제(Eisenberg, Fabes, Guthrie, & Reiser, 2000) 또한 저소득층 아동의 높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인성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외부의 지시나 감독 없이도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행동을 하며, 미래의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행동을 제지하고 인내하는 능력(Kopp, 1982)인

자아통제는 개인의 성공적인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Baek, 2007; Betts & Rotenberg, 2007; Chang, 2007; Eisenberg et al., 2000; Lengua, 2003; Woo & Park, 2009). 학교적응이 학업수행이나 학업성취 등 학업 외에 또래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환경에서 요구되는 규칙 준수 등을 포괄함을 고려해 볼 때, 자신의 의지 등으로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 등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Eisenberg & Fabes, 1992), 충동적이지 않고 신중하며 현재의 만족보다 미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바람직한 행동에 참여하나 그렇지 않은 행동은 억제하는 능력(Kendall & Wilcox, 1979)인 자아통제는 성공적 학교적응을 위해 필요한 개인 내적 인성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에 의하면, 학교적응은 환경적 요인 중 대인관계적 요인인 모애착과 또래애착에 의해, 그리고 개인적 요인 중 자아관련 요인인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에 의해 영향받는다 고 볼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이지만 선행연구에서는 각각의 변인이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할 뿐 저소득층 아동 중 학교적응이 높은 아동을 판별하는데 이러한 변인이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연구하지 않았다. 또한 대인관계의 환경적 요인과 자아관련의 개인적 요인 중 어떤 요인이 저소득층 아동의 높은 학교적응을 예측하는데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제안한 바 없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환경적 요인인 대인관계특성(모애착, 또래애착)과 개인적 요인이 자아특성(자아탄력성, 자아통제)이 학교적응이 높은 아동과 학교적응이 낮은 아동을 신뢰롭게 구분하는 변인인지를 판별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저소득층 아동의 성공적 학교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정보를 탐색하고자 한다. 판별분석은 측정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각 개체들이 2개 이상의 집단 중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를 판별하는 분석방법이다(최종후, 전수영 2012). 따라서 판별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보는 저소득층 아동 중 학교적응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판별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학교적응이 높은 저소득층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판별분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학령기 아동의 대인관계특성(모애착, 또래애착)과 자아특성(자아탄력성, 자아통제)은 학교적응이 높은 저소득층 아동을 판별할 수 있는가?

초기 학교 적응은 이후 학교 적응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Entwistle, 1995)는 점을 고려할 때 학령기 아동의 성공

적인 학교적응은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적응이 문제되기 쉬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판별분석을 통해 높은 학교적응을 보이는 아동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 이 연구의 결과는 저소득층 학령기 아동 뿐 아니라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지원하는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의 결과는 학교현장에서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을 상담하거나 지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대구지역의 4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 5, 6학년 아동 중 저소득층 아동으로 분류된 335명을 연구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저소득층 아동 중 초등학교 4, 5, 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저학년과 달리 오후 수업과 방과 후 수업 등으로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학교적응에 대한 지도와 중재가 본격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시기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저소득층 아동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것은 첫째, 비저소득층 아동과의 집단 간 비교보다 저소득층 아동 집단 내 비교가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 중재에 필요한 현실성 있는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둘째, 비저소득층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의 집단 간 비교가 저소득층 아동의 낙인효과를 강화시킬 위험성이 있다면, 저소득층 아동 내 비교연구는 저소득층 집단 안에 내재하는 긍정성과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낮은 계층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득의 낮음'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저소득층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최저생계비가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법원에서 산정하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기준의 최저생계비를 사용하여 저소득층을 구분하였다.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저소득층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짐으로써 저소득 아동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 선정을 위해 사용한 저소득층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원은 보건복지부 발표 최저생계비의 150%에 해당하는 차차상위계층의 소득을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기준의 최저생계비로 책정함으로써 저소득의 범위를 보다 넓게 보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2011년 4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495,550원의 150%인 2,243,325원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chool-aged Children

(N=335)

Characteristics	Class	Frequency(%)	Characteristics	Class	Frequency(%)
Grade	4th	64(19.1)	Mother job	non-job	133(39.7)
	5th	116(34.6)		job	194(57.9)
	6th	155(46.3)		missing	8(2.4)
Sex	boy	160(47.8)	Income (million won)	150 <	141(42.1)
	girl	175(52.2)		150 ≤ and < 250	194(57.9)
Mother age	30s	191(57.0)	Father age	30s	95(28.4)
	40s	135(40.3)		40s	226(67.5)
	50s	4(1.2)		50s	10(3.0)
	missing	5(1.5)		missing	4(1.2)
Mother education	high school ≤	217(64.8)	Father education	high school ≤	202(60.3)
	2 year college	16(4.8)		2 year college	26(7.8)
	university ≥	90(26.9)		university ≥	97(29.0)
	missing	12(3.6)		missing	10(3.0)

(Kim et al., 2012)을 기초로 250만원 미만 소득 가정의 아동을 저소득층 아동이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학령기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학년 64명(19.1%), 5학년 116명(34.6%), 6학년 155명(46.3%)이었으며 남자는 160명(47.8%), 여자는 175명(52.2%)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는 40대가 226명(67.5%), 어머니는 30대가 191명(57.0%)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202명 60.3%), 어머니(217명, 64.8%) 모두 고졸 이하가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2. 연구척도

1) 학교적응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은 Lee and Kim(2008)의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38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나는 학교에서 배운 학습내용을 잘 익힐 수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등의 학교에서 학업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학교공부의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묻는 질문,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로부터 많은 것은 배운다.', 등의 학교에 있는 친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도움을 잘 주고받는지 묻는 질문,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나는 학교 선생님들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 등의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 친밀한

개인적 교류를 묻는 질문, '학교규칙은 학생들이 지켜야 할 내용이므로 잘 지켜야 한다.', '나는 학교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 등의 학교규칙을 잘 지키며 학교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응답 가능 범위는 38점에서 19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2) 모애착

학령기 아동의 모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 and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척도(Inventor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의 개정본(IPPA-R) 중 모애착만을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Ok(199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리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이라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내가 기분 나쁠 때 잘 알아차린다.', '나는 어머니께 나의 어려움과 걱정거리에 대해 이야기 한다.' '어머니는 내게 별 관심이 없다.' 등의 2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산 처리 하였다. 응답 가능 범위는 25점에서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각각 .92로 나타났다.

3) 또래애착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또래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 and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의 개정본(IPPA-R) 중 또래애착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Ok(1998)의 척도를 이용하였다. '내 친구들은 내가 잘 지내는지 걱정해준다.', '나는 고민이 있을 때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구에게 의지한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할 때 귀담아 듣는다', '내 친구들은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준다.' 등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25문항으로 이루어진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로 측정하였으며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산 처리 하였다. 응답 가능 범위는 25점에서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4) 자아탄력성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지각한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Block and Kremen(1996)이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단적 안정성을 확인한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 ER)를 본 연구의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지만 국내외 연구(Marcel, 1992; Huey & Weisz, 1997; Yoo & Shim, 2001)에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4, 5, 6학년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쉽게 관찮아진다', '나는 친구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등의 14문항으로 구성된 자아탄력성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응답 가능 범위는 14점에서 56점으로 높은 점수는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2로 나타났다.

5) 자아통제

학령기 아동의 자아통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Kendall and Wilcox(1979)가 개발한 자아통제 척도(Self-Control Rating Scale: SCRS)를 사용하였다. '나는 어떤 일이나 공부를 할 때, 매일 일정하게 한다', '나는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당장 가져야 한다', '나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편이다' 등의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응답가능범위는 33-16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통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대구지역 내 4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의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 요령을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4주 후에 재방문하여 수거하였다. 질문지는 총 677부가 배부되었으나, 이 중 소독이 250만원이 넘거나 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335부만을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선정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의 독립표본에 의한 t 검증, stepwise 판별분석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미만에서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전 학령기 저소득층 아동 335명의 관련 변인에 관한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았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적응의 평균(표준편차)은 최대값 5점 중에 3.65(.57)로 중간 이상을, 모애착은 평균(표준편차) 3.89(.6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또래애착과 자아통제는 최대값 5점 중에 평균(표준편차) 각각 3.33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Measures

(N=335)

Variables(Likert)	Min-Max	Mean (Std. Deviation)
School Adjustment(5)	1.21-5	3.65(.57)
Mother Attachment(5)	1.68-5	3.89(.63)
Peer Attachment(5)	1.60-5	3.33(.54)
Ego-Resiliency(4)	1.36-4	2.73(.45)
Self-Control(5)	1.85-4.76	3.30(.44)

Table 3. Differences Mean in Study Measures with Low Level of School Adjustment and High Level of School Adjustment (N=215)

Variables(N)	Moth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Ego-resiliency	Self-control
Low level group of school adjustment(109)	3.60(.66)	3.01(.44)	2.41(.36)	3.05(.35)
High level group of school adjustment(106)	4.23(.54)	3.75(.48)	3.09(.41)	3.66(.40)
t-test	-7.66***	-11.80***	-12.95***	-11.87***

*** $p < .001$

Table 4. 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 Moth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Ego-resiliency, and Self-control among School Adjustment Groups in Low-income School-aged Children

Predictor variables	Discriminant function	
	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	Structure matrix
Ego-resiliency	.51	.74
Self-control	.38	.66
Peer attachment	.38	.67
Mother attachment	.28	.43
Eigen value	1.50	
% of Variance	100	
Canonical correlation	.78	
Wilk's Lamda	.40***	

*** $p < .001$

(.54), 3.30(.44)로, 자아탄력성은 최대값 4점 중 평균(표준편차)은 2.73(.45)로 중간 정도의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각 변인의 평균(표준편차)와 함께 <Table 3>에서 저소득층 학령기 아동 중 학교적응이 높은 집단과 학교적응이 낮은 집단 간에 자아탄력성, 자아통제, 모애착과 또래애착에 차이가 있는지를 독립표본에 의한 t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소득 250만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 335명 중 학교적응 점수의 상위 33%를 기준으로 학교적응이 낮은 집단(n=109)과 학교적응이 높은 집단(n=106)으로 분류하였다. 독립표본에 의한 t 검증 결과, 학교적응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어머니 애착($t = -7.66, p < .001$), 또래애착($t = -11.80, p < .001$), 자아탄력성($t = -12.95, p < .001$)과 자아통제($t = -11.87, p < .001$)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학령기 아동의 대인관계특성과 자아특성에 의한 학교적응이 높은 저소득층 아동의 판별분석

대인관계특성(모애착, 또래애착)과 자아특성(자아탄력성, 자아통제)에 따라 학교적응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유의미하게 판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stepwise 판별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개의 판별함수가 도출되었으며 Wilk's Lamda 방식으로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 판별함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da=.40 $p < .001$).

분석결과 추출된 판별함수는 모애착, 또래애착 및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의 변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출된 판별함수는 모애착, 또래애착, 자아탄력성, 자아통제로 구성되어 학교적응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유의하게 판별한다고 할 수 있다. 예측변인과 판별함수간의 상관계수인 구조행렬은 예측변인이 판별함수에 대해 얼마나 많은 부하량(loading)을 지니는가, 즉 예측변인이 얼마나 판별함수의 의미를 잘 대변하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추출된 판별함수의 의미는 판별함수간의 상관계수인 구조행렬의 패턴을 통해 추론된다. 일반적으로 구조행렬의 상관계수가 클수록 그 변인이 판별함수의 의미를 함축할 수 있는 정도가 높지만 관례적으로 구조행렬내의 상관계수의 크기가 .33이상일 때, 의미있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Tabachnick & Fidell, 2006, as cited in Moon 2011).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보면, 추출된 판별함수는 대인관계특성 중 모애착과 또래애착, 자

Table 5. Centroid of Discriminant Function in School Adjustment Groups in Low-income School-aged Children

Classification	Function
	1
Low level group of school adjustment(n=109)	-1.23
High level group of school adjustment(n=106)	1.21

Table 6. Classification Results Based on the Discriminant Function

Group membership	Predicted group membership		N
	Low level group of school adjustment	High level group of school adjustment	
Low level group of school adjustment	97(94.2%)	6(5.8%)	103
High level group of school adjustment	10(9.6%)	94(90.4%)	104

Classification Accuracy Rate 92.3%

아특성 중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 변인으로 그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구조행렬을 보면 자아탄력성이 .74, 자아통제가 .66 또래애착이 .67 모애착이 .43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판별함수와 맺는 의미 관계는 자아탄력성이 .74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표준화정준판별함수 계수를 보면 모애착(.28), 또래애착(.38), 자아탄력성(.51), 자아통제(.38) 수준에 따라 학교적응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구별되는데, 자아탄력성(.51)이 다른 변인에 비해 판별하는 예측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의 판별력이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판별함수와 판별변인이 공유하는 변량으로서 구조행렬계수의 자승으로 표기되는 효과크기(effect size, r^2)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의 효과크기(effect size)는 55%($74 \times .74 = .55$)로, 자아통제 44%($.66 \times .66 = .44$), 또래애착 45%($.67 \times .67 = .45$), 모애착 18%($.43 \times .43 = .18$)보다 높은 비중의 공통변량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적응이 높은 아동의 판별함수의 평균치(centroid)를 <Table 5>에서 살펴보면 학교적응이 높은 아동의 판별함수 평균치는 1.21이고 학교적응이 낮은 아동의 판별함수의 평균치는 -1.23로 나타났다.

이는 추출된 판별함수에 의해 두 집단이 독립적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적응이 높은 저소득층 아동은 낮은 저소득층 아동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높으며 자아통제, 또래애착 그리고 모애착이 모두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저소득 아동 중 학교적응이 높은 집단과 학교적응이 낮은 집단 간의 자아탄력성, 자아통제, 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유의한 차이는 독립표본에 의한 t검증 결과를 제시한 <Table 3>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Table 6>의 판별함수에 의해 분류된 결과를 보면

학교적응이 높은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총 106명 중 90.4%인 94명이 정확히 분류되었으며 학교적응이 낮은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에는 총 109명 중 94.2%인 97명이 정확히 분류되었다. 전체 207명(103+104) 중 집단 유형별로 정확하게 분류된 아동은 191명(94명+97명)으로 판별함수는 92.3%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우연에 의해 분류될 확률(50%)보다 높은 것으로 모애착과 또래애착 그리고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는 두 집단을 충분히 구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대구지역 4개 초등학교 4, 5, 6학년 중 소득 2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 335명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이 높은 아동(109명)과 낮은 아동(106명)을 대상으로 이들 아동의 집단 구분인 모애착, 또래애착으로 이루어진 대인관계특성과 자아탄력성, 자아통제로 이루어진 자아특성 변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판별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추출된 판별함수는 모애착, 또래애착 및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의 변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아동 중 학교적응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변별하는데 모애착, 또래애착,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가 유의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부모와 긍정적이며 수용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아동의 학교적응이 그렇지 못한 아동에 비해 높다고 보고한 연구(Amato & Fowler, 2002; Jackson et al., 2000; Oh et al., 2011), 그리고 빈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양육에 애정적 태도를 보이고 자녀와 원만한 의사소통을 이룰 때 자녀의 학업적 성취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

고한 연구(Orthner et al., 2004)와 유사한 것이다. 또한 친구 관계의 질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발표한 논문(Berndt et al., 1999; Ladd et al., 1996) 및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높은 학업 수행력(Compas et al., 1995; Kwok et al., 2007)을 보이며 높은 학교생활적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 등(Jeun & Song, 2013; Oh et al., 2011; Park & Park, 2010)과도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자아통제가 학업성취 등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한 연구 등(Baek, 2007)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취약한 물질적 환경 안에서 성장하는 저소득층 아동이라 해도 가정 내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고, 학교 내 친구와의 심리적 친밀감이 높을 때 그리고 아동 자신의 자아탄력성이 높거나 높은 수준의 자아통제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높은 학교적응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 지원 사업이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그리고 자아관련적 측면에서 심리적 특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모색할 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과 후 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 또는 드림 스타트 등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 지원 사업을 주도하는 주요 기관(Kim, 2012)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원 정책 사업을 구성하거나 보완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자아탄력성 뿐 아니라 자아통제, 모애착, 또래애착 모두가 적절한 관별의 예측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별변인의 effect size나 표준화정준관별함수 계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아탄력성이 다른 변인에 비해 가장 높은 관별의 예측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에 있어 자아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효율적이며 융통적으로 적응하려는 성향인 자아탄력성(Block & Kremen, 1996)이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을 변별하는데 있어 가장 큰 판별력을 가진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자아탄력성의 근본적 개념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이 빈곤이나 학대와 같은 환경적 위기 상황에서도 높은 적응력을 보이는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Block & Block, 1980)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저소득과 같이 환경적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아탄력성 연구는 일반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탄력성 연구에 비해 자아탄력성의 기능이나 역할을 보다 명확히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점에서 높은 학교적응을 나타내는 저소득층 아동을 판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예측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이 제시된 것은 자아탄력성의 본유적 개념 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소득층 아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수적 부작용으로 인해 비저소득층 아동에 비해 적응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렇

지만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동 개인에게 내재된 자아탄력성이 강하게 작동한다면 아동은 저소득이라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높은 학교적응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아탄력성을 최대한 발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학교적응 지원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아동의 높은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어머니나 또래와의 관계의 질 향상 프로그램도 구안될 수 있으나, 개인 안에 내재해 있는 자아통제나 자아탄력성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특히 자아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안하는 노력이 가장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저소득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높은 학교적응을 나타내는 아동의 특성을 비저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집단 간 비교가 아닌 저소득층 집단 내 자료를 중심으로 판별분석 과정을 활용해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 증대에 필요한 현실성 있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 안에 내재하는 적응적 건강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적응이 높은 아동이 학교적응이 낮은 아동과 다른 특징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을 뿐 변인 간 관계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청소년은 학업적 대처, 관여, 자기조절, 각각된 통제 면에서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Ryan, Stiller, & Lynch, 1994)하며, 학업수행 정도나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것(Birch & Ladd, 1997)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변인 안에 교사와의 관계를 포함시키지 못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교사와의 관계를 대인관계 변인 안에 포함시키면서, 구조방정식을 통해 변인 간 인과적 경로 모형을 탐색해 보기를 기대해 본다.

REFERENCES

- Ackerman, B. P. & Brown E. D.(2006) Income poverty, poverty co-factors, and the adjustment of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34, 91-129.
- Amato, P. & Fowler, F.(2002). Parenting practices, child adjustment, and family diversity.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4, 703-716.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

- 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aek, H.(2007). The effects of self control, self reliance, and attachm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2), 357-373.
- Berndt, Hawkins, & Jiao, 1999; Berndt, T. J., Hawkins, J. A., & Jiao, Z.(1999). Influences of friends and friendships on adjustment to junior high school. *Merrill-Palmer Quarterly*, 45, 13-41.
- Betts, L. R. & Rotenberg, K.(2007). Trustworthiness, friendships and self-control: Factors that contribute to you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6(5), 491-508.
- Birch, S. H. & Ladd, G. W.(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61-79.
- Block, J. H. & Block, J.(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pp. 33-101). Hillsdale, NJ: Erlbaum.
-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Chang, K.(2007). The influ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elf-control ability on their perceived school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1), 1-16.
- Choi, J. & Jun, S.(2012). *Using JMP discriminant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Seoul: Kyowoosa
- Compas, B. E., Hinden, B. R., & Gerhardt, C. A.(1995). Adolescent development: Pathways and processes of risk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265-293.
- Crosnoe, R. & Elder, G. H. Jr.(2004). Family dynamics, supportive relationships, and educational resilience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25, 571-602.
- Duncan, G. J. & Brooks-Gunn, J.(1999).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Cox.
- Eisenberg, N., & Fabes, R. A.(1992).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 Clark(Ed.), *Emotion and social behavior*: Vol. 14.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p. 119-150). Newbury Park, CA: Sage.
- Eisenberg, N., Fabes, R. A., Guthrie, I. K., & Reiser, M.(2000). Dispositional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heir role in predicting quality of soci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136-157.
- Entwistle, D. R.(1995). The role of schools in sustaining early childhood program benefits. *The Future of Children*, 5, 133-144.
- Garnezy, N.(1991).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developmental out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4(4), 416-430.
- Garnezy, N.(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y despite risk. *Psychiatry*, 56(1), 127-136.
- Gerhoff, E. T., Aber, J. L., Raver, C. C., & Lennon, M. C.(2007). Income is not enough: Incorporating material hardship into models of income associations with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8(1), 70-95.
- Huey, S. J., Jr., & Weisz, J. R.(1997). Ego control, ego resiliency,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s predictors of behavior problems in clinic-referre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3), 404-415.
- Jackson, A. P., Brooks-Gunn, J., Huang, C. C., & Glassman, M.(2000). Single mothers in low-wage jobs: Financial strain, parenting, and preschoolers' outcomes. *Child Development*, 71(5), 1409-1423.
- Jeon, K. & Song, S.(2013). A process by which social capital inside and outside of a family affects children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3(18), 143-165.
- Kendall, P. C. & Wilcox, L. E.(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1020-1029.
- Kim, Y.(2012). A study on the support policy evaluation for school maladaptation student. *Th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2), 1-23.
- Kim, M., Kim, T., Woo, S., & Lee, S.(2012). *Poverty statistical yearbook 2012*. Seoul: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lohn, E. C.(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067-1079.
- Kremen, A. M., & Block, J.(1998). The roots of ego-control in young adulthood: Links with parenting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062-1075.
- Kopp, C. B.(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 Psychology*, 18, 199-214.
- Kwok, O. M., Hughes, J. N. & Wen Luo, W.(2007). Role of resilient personality on lower achieving first grade students' current and future achieve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5(1), 61-82.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Lee, K. & Kim, M.(2008). A validation study of the school adjustment scale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1), 27-40.
- Lee, S. & Choi, H.(2007).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parental involvement in education, their ego-resiliency, test anxiety, and school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 Psychotherapy*, 19(2), 321-337.
- Lengua, L. J.(2003). Associations among emotionality, self-regulation, adjustment problems, and positive adjustment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4, 595-618.
- Luthar, S. S.(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y: A study of high 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3), 600-616.
- Min, H. & Kwan, K.(2004). The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of low-income families: Ego-identity and perceptions of paren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2), 81-92.
- Moon, E. & Sim, H.(2001).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friendship quality, self-perception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4), 99-113.
- Moon, T.(2011). Discriminant analysis of the gifted children and academically high achievers using over-excitabilities and self-efficacy.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1), 33-44.
- Masten, A. S.(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 227-238.
- Oh, M., Ahn, J., & Kim, J.(2011). The pathway from attachment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ego-resilience and stres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3), 165-180.
- Ok, J.(1998).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Orthner, D. K., Jones-Sanpei, H., & Williamson, S.(2004). The resilience and strengths of low-income families. *Family Relations*, 53, 159-167.
- Park, J. H. & Park, J. M.(2010). The effects of children's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exam anxiety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6), 125-134.
- Ryan, R. M., Stiller, J. D., & Lynch, J. H.(1994).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s to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as predictors of academic motiv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226-249.
- Song, H. & Choi, S.(2012).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overty level,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learning motiva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6(3), 651-672
- Tabachnick, B. G. & Fidell, L. S.(2006).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5th ed.). Boston: Allyn & Bacon.
- Woo, S. & Park, K.(2009). Self-control and sense of humor as moderating factors for negative effects of daily hassles on school adjustment for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2), 113-127.
- Yoo, S. & Shim, H.(2002).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 189-206.

접수일 : 2013년 07월 15일

심사일 : 2013년 08월 07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8월 13일